

2024년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2024.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 ■ 목 차 ■ ■

I.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장 개요	1
2. 주요 방문 일정 및 목적	2
3. 기대 효과	2
4. 세부 일정	3

II. 방문 국가 개요

1. 독일 개관	4
2. 독일 교육제도	6
3. 독일 소방 운영 시스템	8

III. 공식 방문 결과

1. Carl Bosch Schule Heidelberg	10
2. Liesel Oestreicher Schule	14
3. 라인란트팔츠 교사연합회	18
4. 비스바덴 소방서	21

IV. 현장 방문 결과

1. 하이델베르크 대학	25
2. 슈테델 미술관	27
3. 레지덴츠	28
4.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	30

V. 공무국외출장 후기

1. 위원장 안신일	32
2. 부위원장 김현옥	34
3. 위원 김학서	38
4. 위원 김효숙	40
5. 위원 홍나영	42

I.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장 개요

- (기간) 2024. 4. 28.(일) ~ 5. 4.(토) / 5박 7일
- (국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비스바덴, 마인츠 등)
- (목적) 현지 우수사례 시찰을 통한 교육 및 안전 분야 시책 발굴
- (인원) 8명 (의원 5명, 직원 3명)

소속	직위(직급)	성명	역할	비고
교육안전 위원회 (5명)	위원장	안신일	• 공무국외출장 추진 총괄	
	부위원장	김현옥	•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위원	김학서	• 교육 분야 독일 사례 연구 - 교육과정 운영 현황 자료 수집 - 직업·다문화·안전교육 우수사례 분석	
	위원	김호숙	• 안전 분야 독일 사례 연구 - 쟁점 교육 현안 접목 정책 발굴	
	위원	홍나영	• 소방 조직 체계 및 임무 파악 - 화재 예방 프로그램 벤치마킹	
교육안전 전문위원 (2명)	전문위원	선우명수	• 공무국외출장 추진 지원 총괄 • 의원 보좌 및 현장 기관 방문 지원	
	장학사	김창현	•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지원 • 기관 간담회 주요 내용 정리 지원	
의사입법 담당관	정책지원관	문선희	•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원 • 자료 수집 및 사진 촬영 지원	

2

주요 방문 일정 및 목적

연 번	일 자	방문지	방문 목적	면담자
1	4. 29. (월)	Carl Bosch Schule Heidelberg	♦ 직업교육 운영 현황 및 취업 지원 체계 파악	Jens Peter Misch (학교장)
2	4. 30. (화)	Liesel Oestreicher Schule	♦ 다문화교육 운영 현황 파악 및 제안사항 청취	Thilo Schulz (학교장)
3	5. 2. (목)	라인란트팔츠 교사연합회	♦ 쟁점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교류	Klaus-Peter Hammer (교사연합회장)
4	5. 2. (목)	비스바덴 소방서	♦ 소방 조직 체계 파악 및 화재 예방 프로그램 벤치마킹	Sebastian Pawlik (화재 예방 담당)

※ 기관 방문 일시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기대효과

- 직업 및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 학생의 단단한 자아 형성과 개성 발현을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되는 독일의 직업 및 다문화교육 현황 분석을 통해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도달을 위한 시책 발굴
- 당면한 교육 현안 극복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교권 보호, 유보통합 등 쟁점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교류로 우리 시 교육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지역사회 인프라 확장을 통한 안전 시스템 모색
 - 전문 소방인력 외 주민 자치를 통한 촘촘한 소방 안전 체계 파악 및 화재 예방 프로그램 벤치마킹

구분	일자	도시	방문지	내용	비고
1일차	4/28 (일)	세종	(국가 이동)	• 정부청사(04:40) → 인천공항(07:00)	공항 버스
		인천		• 인천국제공항 출발(09:45)	
		프랑크푸르트		• 프랑크푸르트공항 도착(16:30)	항공
2일차	4/29 (월)	하이델베르크	Carl Bosch Schule Heidelberg	• 교육 분야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직업교육 운영 현황 및 취업 지원 체계 파악	전용 차량
			하이델베르크 대학	• 우수 교육현장 탐방 - 창의력 신장을 위한 학습공간 조성 및 문화 이해	
3일차	4/30 (화)	프랑크푸르트	Liesel Oestreicher Schule	• 교육 분야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다문화교육 운영 현황 파악 및 제안사항 청취	전용 차량
			슈테델 미술관	• 우수 교육자원 탐방 - 문화예술 인재 양성 지원 방안 발굴	
4일차	5/1 (수)	뷔츠부르크	레지덴츠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현장 방문 - 교육자원 활용 방안 모색	전용 차량
		로텐부르크	시청사, 의회연회당	• 지역사회 특화 대민시설 탐방 - 전통문화 보존 및 안전 관리 우수사례 파악	
5일차	5/2 (목)	마인츠	라인란트팔츠 교사연합회	• 교육 분야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쟁점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교류	전용 차량
		비스바덴	비스바덴 소방서	• 안전 분야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소방 조직 체계 파악 및 화재 예방 프로그램 벤치마킹	
6일차	5/3 (금)	슈투트가르트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	• 선도기술 체험자원 탐방 - 자동차 내 안전 기술 발달 과정 탐색	전용 차량
		프랑크푸르트		• 프랑크푸르트공항 출발(18:30)	항공
7일차	5/4 (토)	인천	(국가 이동)	• 인천공항 도착(13:20)	의회 차량
		세종		• 인천공항(14:00) → 의회(18:00)	

II. 방문 국가 개요

1 독일 개관

- (원어명) Deutschland
- (면적) 357,022km²
- (수도) 베를린
- (공용어) 독일어
- (종족구성) 독일인(87.2%), 튀르키예인(1.8%), 폴란드인(1%), 시리아인(1%), 기타(9%) (2017년)
- (종교) 로마가톨릭(27.7%), 개신교(25.5%), 무슬림(5.1%), 정교(1.9%), 기타 기독교(1.1%), 기타(9%), 무교(37.8%) (2018년)
- (정체) 연방공화제
- (통화) 유로화(Euro)
- (인구) 83,783,942명 (2020년)
- (평균수명) 81.30세 (2019년)
- (1인당 명목 GDP) 41,167\$ (2012년)
- (국제전화) +49

유럽 중부에 위치한 연방국으로 정식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이다. 수도는 베를린이고 공식 언어는 독일어로 지역에 따라 여러 방언이 존재한다. 16개의 주(Länder)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3개의 도시, 베를린·함부르크·브레멘이 포함되어 주(州)와 동등한 자치권을 갖는다.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창설국으로 유럽 연합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유럽 전체로는 러시아와 튀르키예에 이어 세 번째인 인구 대국이다.

지리적으로 북으로 북해와 덴마크와 접하며, 동쪽으로 폴란드·체코, 남쪽으로 오스트리아·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와 접한다. 국경선 안쪽으로 알프스 산맥·라인강·도나우강·슈바르츠발트 산맥이 자리하고 있다. 영토면적은 357,02km²로 프랑스의 약 3분의 2 정도의 규모이며 유럽에서 일곱 번째로 크다.

독일의 영어명인 'Germany'는 로마의 정치인이자 장군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라인강 동부에 사는 민족을 '게르마니아(Germania)'로 부른데서 유래한다. 또한 독일어 국명인 'Deutschland'는 '독일의 땅(diutisciu land)'에서 유래한다.

현재의 독일 지역에는 기원전부터 여러 게르만계 부족이 거주하였고, 서기 100년경 문헌에 게르마니아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10세기에 이르러 게르만족은 신성로마제국의 핵심 민족이 되었고, 16세기에 북독일은 종교 개혁의 중심지가 되었다. 1806년 나폴레옹 전쟁으로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되면서 여러 제후국과 도시국가로 분열되었다가, 1871년 북부의 프로이센이 중심이 되어 독일제국(German Empire)을 형성하여 중부유럽의 강국으로 군림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1918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하였고, 이후 1933년 나치스가 정권을 잡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1949년 종전과 함께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 전승 4개국의 분할통치를 받다가,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서독은 1950년대부터 '라인강의 기적(Miracle on the Rhine)'으로 불리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냉전이 정점에 이른 1961년에는 동독 측에서 일방적으로 베를린 시를 가르는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여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서독의 동방정책(Ostpolitik)으로 정치적 대치가 완화되고 경제적 교류가 진행되었고,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에 따른 동독의 공산정권 붕괴로 1990년 통일이 이루어졌다. 통일 후 독일은 유럽연합의 핵심 회원국으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출처] 두산백과 두피디아

□ 독일 교육제도 일반

- 독일 학생은 4년의 초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른 유형의 2기교육 1단계(중등과정)에 진입

① 대학진학이 목표인 경우: **김나지움(Gymnasium)**

※ 9년제(1단계 5학년~10학년, 2단계 11학년~13학년) 김나지움 이수 시 독일 모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아비투어(Abitur) 시험에 응시가능

②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레알슐레(Realschule)**: 초등학교 졸업생의 약 20% 진학

※ 6년제(5학년~10학년) 보통교육 및 직업교육 실시, 졸업 후 전문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하고, 김나지움 상급 과정(11학년~13학년)으로의 진학 자격이 부여

· **하우프트 슐레(Hauptschule)**: 초등학교 졸업생의 약 30% 진학

※ 5년제(5학년~9학년) 기초적인 직업교육을 실시

③ 진로 결정을 보류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학교(Gesamtschule)***

* 상기 세 형태의 학교가 한 캠퍼스 내에서 운영되는 형태의 학교

-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2기교육 1단계를 마친 후 이원화제도(직업학교), 직업전문학교, 전문고등학교 등에 진학하고

-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김나지움 상급과정에 진학하여 대학 입학자격시험(Abitur)에 합격 시 대학 입학 가능

【 독일의 교육제도 】

현장내 계속교육, 저녁학교, 전문학교	대학, 전문대학				3기 교육 (18~23세)
이원화제도 (직업학교와 사업내 훈련)	직업전문학교 전문고등학교		김나지움 상급과정	2기 교육 2단계 (15~19세)	
특수학교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김나지움	종합학교	2기 교육 1단계 (10~16세)
	오리엔트단계				
특수학교	초등학교				초등교육 (7~10세)
특수유치원	유치원				기초교육 (3~6세)

【 우리나라와 독일의 교육제도 비교 】

한국의 교육제도			학년	나이	학년	독일의 교육제도							
취업			-	29	-	취업							
			-	28	-								
			-	27	-								
			-	26	-								
			-	25	-								
대학원		사설 직업학교	-	24	-	일반대학교 신학대학교 교육대학교 예술대학교 종합대학교			전문대학교 행정대학교		취업		
대학교	-		23	-									
	4		22	-									
	3		21	-									
	2		20	-									
전문 대학	1	19	-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3	18	13	종합 학교 (Gesamt schule)	김나 지움 (Gymna sium)	전문 김나지움 (Fachgym nasium)	전문 고등학교 (Fachoberschule)	이원화체제 ※직업학교 (Berufschule)	
		2	17	12									
		1	16	11									
중학교			3	15	10			실업학교 (Realschule)		주요학교 (haupt schule)	특수 학교 (Sonder schule)		
			2	14	9								
			1	13	8								
초등학교			6	12	7	진로결정과정(Orientierungsstufe)							
			5	11	6								
			4	10	5	기초학교(Grundschule)							
			3	9	4								
			2	8	3								
			1	7	2								
유치원			-	6	1	유치원(Kindergarten)					특수 유치원		
			-	5	-								
			-	4	-								
			-	3	-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독일의 청소년 직업교육훈련제도 및 동향, 김도형

□ 재난관리 체계

- 독일의 재난관리 제도는 연방기본법에 의해 연방정부와 소방 연맹 (Deutscher Feuerwehrverband)에 의해 지원되고 조정됨
- 재난관리 체계는 재난규모에 따라 연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 구조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독일은 잘 조직된 소방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전문 소방대와 자율소방대를 활용하여 화재예방,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폭넓게 수행함
- 화재 및 긴급구조 번호는 112를 사용함
 - ※ 응급의료서비스의 경우 의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출동하는 시스템

□ 소방대원의 임무

- 우리나라와 같이 화재예방, 화재진압, 구조작업 등 모든 재난상황 및 응급상황 대응과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함, 또한 예방교육,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사설구급대가 분담하여 응급의료를 담당함
 - ※ 일부 지역에서는 응급의료서비스도 소방에 포함된 경우가 있음
- 예전에는 한 명의 소방관이 화재, 구조, 구급을 도맡아 하도록 하는 만능 소방관 체제였으나 응급의료분야에서 점점 의료적 전문성이 요구되다 보니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구급대원으로 채용되어 응급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소방대 조직

-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소방서의 경우 약 1,200명의 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소방대와 자원봉사 소방대, 구조대(응급의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 전문소방대(Berufsfeuerwehr)
 - 프랑크푸르트 전역에 12개소의 소방서와 전문구조대가 있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시민을 보호하고 있음
 - 전문소방대는 화재진압뿐 아니라 고층건물구조, 수상구조, 트램 등 레일구조 등을 수행하는 특수부서가 소속되어 있음
 - 전문소방대에 소속되어 있는 응급차량은 출동 5분 이내에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포되어 있음
- 자율소방대(Freiwillige Feuerwehr)
 - 자율소방대는 프랑크푸르트 전역에 총 28개소 약 900명의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문소방대와 협력하여 도시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음
 - 자율소방대는 전문소방대에 의해 관리되고 차량 및 장비유지관리에 있어 소방서에 의해 감독됨
 - 자율소방대원도 전문소방대와 같은 훈련을 받으며 응급처치와 같은 응급교육도 받지만 구급차량 탑승이나 구급상황 대처는 하지않음
- 구조대(응급의료서비스)
 - 프랑크푸르트 12개의 소방서 중 9개의 소방서에 응급차량을 보유하고 있음
 - 응급차량은 전문응급구급대를 배치하여 중환자 의료서비스 및 특수 의료장비를 운반하기도 함

□ 독일의 소방시설

-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며 이는 건물 설계부터 가스 안전 규제가 미리 적용되어 있으며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에 대해 미리 대비가 되어있음
- 광범위한 소방 시설과 강화된 안전 규제로 안정적인 소방 시스템을 운용하는 나라로 철저한 건축규제와 소방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화재 예방 및 대응능력을 높이고 있음
- 또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된 소방 시설과 국민들의 매우 높은 안전의식에 의해 화재 예방 등 초동 대처도 잘 이루어지고 있음

III. 공식 방문 결과

1

Carl Bosch Schule Heidelberg



□ 방문 개요

- (일시) 2024. 4. 29.(월) 10:30
- (주소) Maria-Probst-Stra ß e 8, 69123 Heidelberg
- (면담자) Jens Peter Misch(학교장)
- (내용) 직업교육 운영 현황 및 취업 지원 체계 파악

□ 기관 현황

- (분류) 상업 기술 중심의 중등 직업학교
- (재학생) 1342명(시간제 751여명, 종일제 591여명)
- (특징) 기업과 연계한 도제훈련을 위해 시간제 교육과정을 운영
 - ※ 과정별로 상이하나 보통 주당 사업체 3.5일, 학교 1.5일 교육 실시

□ 주요 질의 및 응답

Q. (김효숙) 조기 진로 결정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가?

A. 독일 학생은 4년의 초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른 유형의 중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는데 교사의 판단이 기준이 됨. 진학할 학교의 교사 추천에 대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믿고 따르지만 추천에 이의를 가질 경우 학생의 적성검사와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침. 그리고 이 시기가 개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단계인 만큼 진학의 방향을 숙고할 수 있는 종합학교(Gesamtschule) 제도가 있음.

Q. (김현옥) 독일 내 직업 인식은 어떠한가?

A. 독일은 탄탄한 직업교육을 토대로 유럽에서 안정적인 청년고용률을 달성하고 있고 마이스터(meister) 정신으로 모든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차별 없는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

Q. (홍나영) 귀교의 학생 현황은 어떠한가?

A. 재학생은 총 1342여명으로 남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음(86%). 이공계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여학생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Q. (안신일) 귀교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A.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이공계열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 특히 그동안 여학생들이 인문학이나 사회 과학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모두에게 MINT 교육을 지원하여 이공계열의 학자 및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디지털 기기 구축 및 MINT(Mathematik, informatik, naturwissenschaft, technik) 교육을 강조하여 다양한 융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Q. (김학서) 학교 운영 예산의 출처는 어디인가?

A.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주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음. 직업학교 기준으로 사립학교의 비율은 전체의 5% 정도임.

Q. (김학서) 기업과 연계한 도제교육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A. 학생은 기업을 다니면서 학교를 같이 다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채용 기간은 보통 3년에서 3.5년까지임. 개인의 진로 희망을 고려하여 기업 채용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도 지급받음. 일주일에 3일 기업에 출근하고, 2일은 학교에 등교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는 이원 제도를 운영함.

Q. (김효숙) 도제교육 이후 실습 기업으로 취업하는 비율과 초임 연봉 수준은?

A. 거의 100%의 학생이 취업을 하며 초임 연봉은 2,700€ 수준임.

Q. (김현옥) 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가?

A.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와 기업에서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 조치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고를 최소화하고 있음.

Q. (김효숙) 학과 개편 주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

A. 10년마다 주정부 주도로 진행되며 직종 대표, 교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지역 내 현황과 향후 유망 업종을 고려하여 선정함.

Q. (안신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하는가?

A. 직업교육 훈련 시 기업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 데 비용의 70% 정도를 기업에서 부담함. 기업에서는 직업교육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여 졸업 후 정직원으로 채용을 할 수 있어 학교와 기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짐.

Q. (홍나영) 장애학생의 경우 특수학교 이외의 일반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는가?

A. 장애학생의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이 가능함. 별도의 특수교육반은 없으며 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함.



□ 시사점

- 독일 직업교육의 핵심은 이원화 제도임. 직업교육을 학교와 기업이 분담하여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기업이 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훈련과 관련된 권한 및 책임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직업교육이 가능하도록 함.
- 직업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는 주 정부의 소관이나 직업 훈련생은 기업에 채용되어 소정의 보수를 받으므로 독일 직업교육의 비용은 상당 부분 기업이 부담하게 되며, 기업에서 실무를 충분히 익히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게 되는 안정적인 순환이 이루어짐.
- 직업학교의 진학 및 이동이 개방적이고 유연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직업 탐색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 또한, 향후 직업 활동과 동일한 실습 환경을 조성하여 실제적인 직업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방문 개요

- (일시) 2024. 4. 30.(화) 10:00
- (주소) Boskoopstraße 6, 60435 Frankfurt
- (면담자) Thilo Schulz(학교장)
- (내용) 다문화교육 운영 현황 파악 및 제안사항 청취

□ 기관 현황

- (분류) 초등학교
- (재학생) 1~4학년 360여명
- (특징)
 - MINT 친화학교 인증을 받은 프랑크푸르트 내 유일한 초등학교
 - 재즈 활동 학교로 축제, 서커스 등 다채로운 예술 경험을 지속 제공
 - 한국교원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한국 교장단의 정기 방문 실시

□ 주요 질의 및 응답

Q. (김현옥) 다문화학생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A. 현재 헤센주 전체 초등학생의 평균 43%는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프랑크푸르트의 일부 학교에서는 85%를 넘는 등 도시 지역에서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높은 편임.

Q. (안신일) 기관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A. 2017년에 신설된 신도심에 위치한 학교임. 360여명의 학생이 16개의 학급에 배치되어 있으며 34명의 정교사와 25명의 보조교사가 근무 중임

Q. (홍나영) 다문화학생(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A. 지역적인 편차는 있으나 현재는 일상적으로 받아들임.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육을 통해 문화 간 이해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임.

Q. (안신일) 귀교만의 특색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면?

A. 학령기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집중 수업을 통해 기본적인 독일어 사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 1학년의 경우 매일 5시간의 독일어 수업이 있고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하여 2명의 독일어 교사가 지도함.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정규 수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함. 2학년은 3시간씩 수업을 진행하며 제 2국어로써 독일어를 집중적으로 지도함. 그 외에 거주 지원, 생활지원, 수업 지원, 기초학력 지원, 프로젝트 운영 등을 함.

Q. (김효숙) 다문화학생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가?

A. 초등학교 입학 1년 반 전 독일어 지원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취학 전 언어 지원 과정을 마련함. 독일어 쓰기, 발음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목적으로 독일어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춘 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함.

Q. (김학서) 다문화학생 지원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A. 모든 학교에 심리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음. 다문화 학생의 정서를 지원하고 학부모 상담을 실시함. 심리상담사의 역할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곳의 경우 수업 참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의 역할을 함.

Q. (김효숙) 심리상담사의 고용 주체 및 자격 요건은?

A. 심리상담사 예산 제공의 주체는 주정부, 지자체, 학교로 다양함. 자격 요건은 대학에서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등 수료자임.

Q. (김현옥) 학부모 상담 시 언어가 다른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가?

A. 학부모 상담 시 언어가 상이하므로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언어 지원이 필요함. 학교 안 이중 언어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 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가족, 친지 등이 봉사를 하기도 함. 모든 지자체에 설립되어 있는 청소년청에서 부담금 없이 통역을 지원받음.

Q. (김학서) 다문화학생의 학업 성취를 도와주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A. 초등학교의 경우 각 반에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학습을 지원함. 학령기 신규 이민자를 위한 필수 프로그램으로 독일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 수업이 이루어짐.

Q. (홍나영) MINT 교육과정 운영 시 다문화학생의 어려움은 없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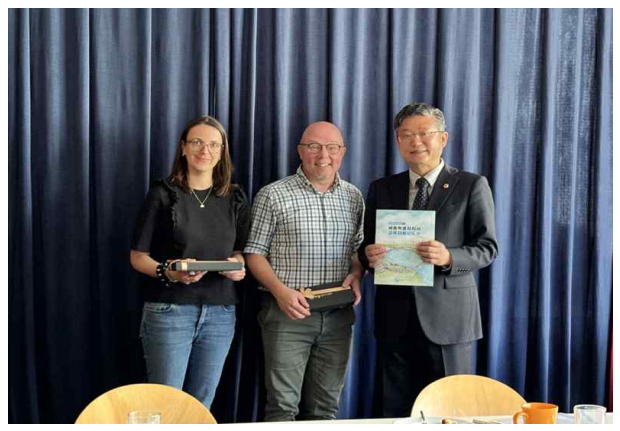
A. MINT 주간 운영 및 다양한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협력하여 수학, 컴퓨터, 자연과학, 기술 등이 융합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공함.

Q. (김효숙) 교권이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A. 사회 전반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고 교사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이지만 상급학교는 교권침해, 수업 방해가 발생하고 있음. 문제 파악 시 가정 문제를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Q. (김현옥)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 정책에 협조적인가?

A.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 정책에 대체로 협조적임. 학부모회가 운영되며 학교운영의 파트너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함. 학부모회의 참석율은 99.9%로 일정은 1년 전 공지함.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나 대부분 대화와 상담으로 해결됨.



□ 시사점

- 이주로 인해 독일어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일어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이를 통해 교육 결손을 해소하고 학습기회를 확대함.
- 유치원 연계를 통한 입학 전 예비교육과정 운영으로 다문화 학생의 독일어 사용 능력 향상을 향상하여 학교 적응 및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함.

-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마련하여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을 전제로 한 온전한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함.
- 심리상담사를 채용하여 다문화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습을 지원함. 더불어 행정업무를 분담하여 교사의 생활지도 여력 확보에 기여함.
- 돌봄을 담당하는 기관과 학교가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학교는 장소를 제공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돌봄 기관은 프로그램과 교사를 지원함.

3 라인란트팔츠 교사연합회



□ 방문 개요

- (일시) 2024. 5. 2.(목) 10:00
- (주소) Mittlere Bleiche 61 55116 Mainz
- (면담자) Klaus-Peter Hammer(교사연합회장)
- (내용) 쟁점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교류

□ 기관 현황

- 교사의 지위 향상 및 전문성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 단체로 라인란트팔츠주의 최대 교원 단체임

□ 주요 질의 및 응답

Q. (안신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지원 시 어려움은 무엇인가?

A.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쟁 난민 유입 및 국방비 증가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함. 결원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결원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

Q. (김현옥) 최근 한국은 교권이 침해받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독일에서 교사의 지도 권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A.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임. 학생 정서 지원 및 심리 상담을 위한 상담 인력 배치하여 상담 시간 확보에 대한 요청이 있음.

Q. (김학서) 교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A. 교사의 평균 수업 시수는 27시간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10년 동안 변함이 없음. 수업 시수 축소 및 복지 확대를 위한 요구를 하고 있음. 주마다 교사의 급여가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교육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음.

Q. (홍나영) 최근 한국은 유보통합이 화두이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제언을 해준다면?

A. 독일의 유치원은 의무교육은 아니고 하루 7시간까지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음. 혼합반으로 운영되며 같은 공간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가족과 같은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함.

Q. (홍나영) 유치원과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A. 사전 브리핑, 언어 지원, 학교 탐방, 교통 안전교육 등 학교 적응 기회를 제공함. 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안내 및 적응 도모함.

Q. (김효숙) 최근 한국은 학교의 역할 중 돌봄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의 상황은 어떠한가?

A. 2026년 전면 전일제 학교 시행 예정 중이나 예산 및 인력은 확보되지 않았음. 방과 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마련.

Q. (김학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신체적 가해 등 학교폭력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A. 수업 시간 내 미디어 문해력 기르기,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포털 구축 및 교육자료 제공, 학교별 규칙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함.



□ 시사점

- 독일 역시 최근 교사들이 겪는 극심한 어려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이중 언어 학생 증가 및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으로 외국인 교사 채용에 대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 및 기존 임용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외국인 교사의 선발 비율은 저조한 상황임
- 정규수업 후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의 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시간을 확대하였음. 부족한 예산을 극복하고자 지역 내 각종 커뮤니티와 연계하고 프로그램과 강사를 마련함.



□ 방문 개요

- (일시) 2024. 5. 2.(목) 16:00
- (주소) Sankt-Florian str 1, 55252 Wiesbaden
- (면담자) Sebastian Pawlik(화재 예방 담당)
- (내용) 소방 조직 체계 파악 및 화재 예방 프로그램 벤치마킹

□ 기관 현황

- 헤센주 비스바덴시의 소방서로 화재 진압 및 응급상황 대응 등의 임무 수행
- 화재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추진 중
- 350명의 소방공무원, 3개 소방서, 20개의 자원봉사자 의용 소방대

□ 주요 질의 및 응답

Q. (김학서) 소방공무원 근무체계는 어떻게 되는가?

A. 소방공무원은 24시간 근무로 3교대를 함. 매일 2시간씩 교육시간이 확보되어 있고 매일 2시간은 반드시 운동을 하도록 되어있음.

Q. (김현옥) 지휘관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가?

A. 상위관리자인 지휘관은 대학 관련 분야의 학위취득,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상황대응력을 갖추어야 함. 이론적으로는 논리적 사고, 수학, 쓰기,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체력 검정 통과 및 지역 및 직무 이해, 동기, 상식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함. 호흡기 질환 진단 및 건강 검진도 실시함.

Q. (안신일) 재난현장에 드론이나 로봇 등이 활용되고 있는가?

A. 수색이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 드론이 투입됨.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관리함. 필요시 경찰서에 요청함.

Q. (김효숙)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 시스템들이 운영되는가?

A. 방독면, 위치추적센서, 통신장비를 사용함. 사용 후 즉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함. 건강한 신체 유지를 위해 자발적인 체력관리가 필요하며 필수 의무 운동(수영장, 헬스클럽 등)을 무상으로 지원함.

Q. (김현옥) 동료구출조(Sicherheitstrupp)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동료 구출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이 있는가?

A. 5명이 투입되면 동수(5명)가 화재현장에 대기하여 운영함. 매 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

Q. (홍나영) 고층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재 예방 및 진압 대책이 있는가?

A.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에 대해 미리 대비가 되어 있음. 각 층에는 필요한 만큼의 물이 배치되어 있고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있음.

Q. (김현옥) 장애학생 구조를 위한 소방 시설은 보유하고 있나?

A. 구조 장비가 완비되어 있으며 필요시 추가 인력을 배치하여 신속 정확한 구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Q. (안신일) 전기차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가? 전기차 화재진압 방법은?

A. 전기차는 화재진압이 어려운 차량으로 워터탱크를 활용하여 장시간 냉각하는 방법을 활용함.

Q. (김효숙) 소방관에 대한 대우 및 사회적 지위는 어떠한가?

A. 타 직종에 비해 급여 및 각종 수당이 높은 편임. 그러나 사회적 지위는 예전만 못함.

Q. (홍나영) 효과적인 화재 예방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가?

A. 화재예방교육 매뉴얼이 있고 규정대로 교육을 진행함. 이론과 함께 직접 안전하게 불을 꺼보게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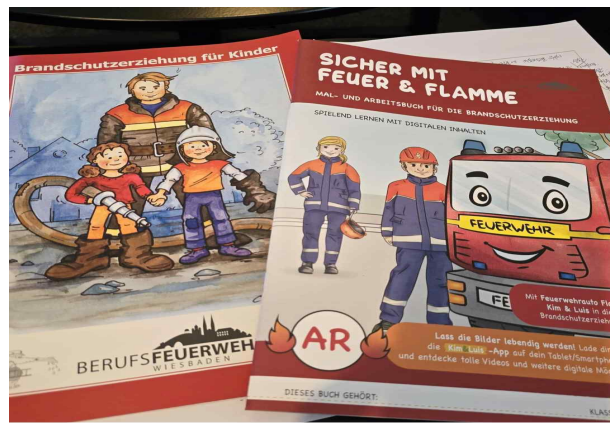
Q. (김효숙)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 연계 체계가 구축 되어있는가?

A. 독일은 민간업체가 구급차를 운영함(적십자, ABS 등), 시민들은 무상으로 이용하며 소방서는 구급차 관련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함.

Q. (김학서) 테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가?

A. 대테러 대응부서는 가장 사무실이 많고 높은(23m) 건물에 의도적으로 위치함. 독일 시민 보호 및 재난 지원 사무국(BBK)의 통제 하에 경찰, 소방, 기술 관련 종사자 모두 소집하여 대응함.





□ 시사점

- 소방관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매일 교육과 체력단련을 각각 2시간씩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또한, 현장 투입 시 안전 보장을 위해 추적 및 보호 장비를 보급하고, 신속한 위급 상황 대처를 위해 동수의 대기조를 편성하고 있음
-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이론과 실습을 통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있고 학교의 소방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영하고 있음.
- 안전교육의 중점을 예방에 두고 교육은 실제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음. 특히, 학생들에게 친숙한 캐릭터, 만화 등을 이용한 수준별 접근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음.

IV. 현장 방문 결과

1 하이델베르크 대학

□ 방문 개요

- (일시) 2024. 4. 29.(월) 14:00
- (주소) Grabengasse 1, 69117 Heidelberg
- (내용) 우수 교육현장 탐방, 창의력 신장을 위한 학습 공간 조성

□ 하이델베르크 대학 일반 현황

-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하이델베르크 시에 위치한 국립 대학으로 1385년 루프레히트 1세에 의해 설립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이자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낸 연구 중심의 명문 대학임. 캠퍼스는 총 세 곳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부와 연구소가 있는 하이델베르크 구시가지 캠퍼스, 자연과학과 대학병원을 포함한 의학과가 있는 노이엔하이머펠드 캠퍼스, 기존 구시가지 캠퍼스에 있던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연구소가 옮겨진 하이델베르크-베르크하임 캠퍼스가 있음.
-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현재 31,00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그 중 약 6,000명은 외국인 학생임.
- 입학 정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학과들은 1년에 총 두 번(여름, 겨울) 새학기를 운영하며, 입학 정원 제한을 두고 있는 학과들은 겨울학기에만 새학기를 운영함.
-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12개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음. Bologna process (유럽 국가들의 교육제도 단일화)의 결과로 대부분의 학부들이 현재 학사(bachelor), 석사(master), 박사(Ph.d) 학위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학, 의학,

치의학과 약학 학부는 Bologna process와 별도로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 연구 중심의 교육에 전념하는 국제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연구 대학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우수하나 특히 의학,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가 매우 발달함. 자연과학 중에서는 물리학과 생물학, 인문사회과학 계열 중에서는 역사학, 심리학, 신학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함.
- 각 학부와 연구실들이 개별적으로 조그마한 도서관을 가지고 있고, 규모가 큰 중앙도서관을 구시가지와 노이엔하이머펠드에 각각 하나씩 운영하고 있음

□ 시사점

-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장점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수진이 모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문적 교류를 증진시키는데 있음. 국제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가지며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캠퍼스와 시설은 학생의 학업성취 및 생활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현대적인 교실과 연구시설, 도서관,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방문 개요

- (일시) 2024. 4. 30.(화) 15:30
- (주소) Schaumainkai 63, 60596 Frankfurt am Main
- (내용) 우수 교육자원 탐방, 문화예술 인재 양성 지원 방안 발굴

□ 슈테델 미술관 일반 현황

- 중세에서 현재에 이르는 유럽 미술 컬렉션을 소장한 미술관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미술관임. 1815년 프랑크푸르트 지역의 은행가였던 슈테델의 기부로 만들어졌고 총 2,700점의 회화를 비롯하여 600점의 조각, 드로잉과 판화 약 10만 점을 소장하고 있음.
- 2012년 2월 현대미술 증축 공사가 완료되면서 700년 미술사를 담은 작품들이 7,500㎡ 규모에서 전시되고 있음.
- 대표 작품으로는 렘브란트의 The Angel Appearing to the Shepherds, 클로드 모네의 The Luncheon, 알브레히트 뒤러의 초상화,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Mother and Child, 에드가 드가의 Dancer holding her right foot in her right hand 등이 있음.
- 르네상스, 바로크, 모더니즘에 이르는 미술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단순 전시 뿐만 아니라 작품 설명을 포함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음.

□ 시사점

- 딱딱하거나 무겁지 않은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유도함. 작품 앞에서 토론을 하며 모사에 집중한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지역 내 교육의 수준 높은 콘텐츠로써 문화예술교육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

- 미술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 공식 홈페이지 디지털 컬렉션에서도 시대별, 작가별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므로 학교 수업에 다양하게 활용됨.



3 레지덴츠

□ 방문 개요

- (일시) 2024. 5. 1.(수) 10:00
- (주소) Residenzpl. 2, 97070 Würzburg
- (내용)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현장 방문, 교육자원 활용방안 모색

□ 레지덴츠 일반 현황

- 198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로크 건축물의 걸작으로 손꼽힘. 1720년에 건설되기 시작하여 1744년에 완공된 궁전으로 발타자 노이만을 비롯한 건축가들이 주교의 후원을 받아 건설함.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폭격으로 파괴되었으나 1980년에 복구를 완료함.
- 궁전의 외관은 마치 세 개의 궁전을 붙여놓은 듯 ㄷ자 모양으로,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홀 천장의 대형 프레스코 벽화가 유명함

- 계단의 방(Treppenhaus)은 18m의 아치형 공간으로 황제의 방으로 가기 위해 처음 들어오는 손님을 경탄하게 만드는 화려함을 자랑함. 황제의 방에는 이탈리아 화가 티에폴로(Giovanni Battista Tiepolo)의 프레스코화가 천장을 장식하고 있음
- 황제의 방(Kaisersaal)은 레지덴츠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로코코 양식으로 금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음
- 궁정 정원은 대칭을 이루도록 구성되어 있다. 동쪽 정원은 레지덴츠의 중심에서 확장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계단처럼 테라스가 되어 있다. 남쪽 정원은 평평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좌우 대칭이다.

□ 시사점

- 레지덴츠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궁전으로, 궁전 자체가 가진 예술적 가치적 가치는 건축사적으로나 미술사적으로나 매우 우수하여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훌륭한 콘텐츠임.
-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된 후 긴 시간을 들여 복원된 재건의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전쟁의 참화를 간접 체험하고 극복의 과정을 내밀하게 엿볼 수 있는 역사교육의 산실로도 활용될 수 있음.
- 궁전을 감싸고 있는 커다란 정원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무료로 개방됨. 시민들은 산책, 독서, 운동 등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는 정원의 모습을 보며, 삶 속에 녹아든 문화유산의 역할은 시민의식을 발현하게 만드는 촉매제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됨.



□ 방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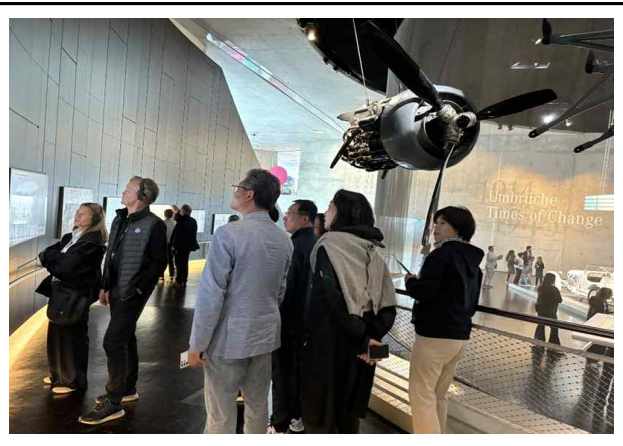
- (일시) 2024. 5. 3.(금) 10:30
- (주소) Mercedesstraße 100, 70372 Stuttgart
- (내용) 선도 기술 체험자원 탐방

□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 일반 현황

-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벤츠 회사의 자동차 박물관. 주로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에 대한 역사와 내용을 다룸. 초기 이동 수단부터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의 자동차의 발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9층 규모의 내부에는 벤츠의 클래식 모델부터 최신 모델을 비롯한 약 160대의 차량과 1,500점 이상의 전시품을 볼 수 있음.
- 메르세데스 벤츠의 대표적 기술 혁신은 다음과 같음.
 - ① (에어백(Air bag)) 1952년 존 헤트릭(John W. Hetrick)이 자동차 충돌 시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급속히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방법을 제안한 뒤, 1967년부터 13년 동안 에어백의 개발 및 실험을 거쳐 1980년 12월 자동차 업계 최초로 에어백을 장착해 출시함
 - ② (프리세이프(Pre-Safe)) 2002년 S클래스에 세계 최초로 적용된 능동적인 안전 시스템. 프리세이프는 주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여 경고하고, 필요에 따라 스스로 예방조치를 하는 시스템임
 - ③ (자동 7단 변속기) 메르세데스 벤츠는 1959년부터 자동 변속기를 개발하고 적용해 옴. 7단 변속기에 적용된 다중 시프트다운(shift down) 원리는 현재 주행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변속 기어를 확인한 후, 다음 기어뿐만 아니라 2단 아래인 5단으로도 변속될 수 있는 기능임.

□ 시사점

- 자동차 기술의 발전 과정과 기계적 원리를 실물을 통해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자동차 발전 과정을 역사적 사건과 접목한 서사 방식은 박물관 탐방에 몰입하게 만들어 매력적인 장소로 거듭나게 함.
- 기계공학적 탐색을 통한 상상력 발현에 도움을 주는 곳이며, 시대에 따라 변모하는 디자인을 관찰할 수 있어 미적 역량 함양에도 도움을 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와 전시물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음.



V. 공무국외출장 후기

1 위원장 안신일

안팎으로 두드리는 독일의 지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인구 감소」는 특정한 범위의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언어적 의미 이상의 많은 것을 내포한다. 사람들의 거주에는 고용과 경제, 교육, 복지, 문화, 보건 등 많은 요인들이 관련되는 만큼 인구 감소는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인구 감소를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 감소」라는 말로 표현한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소규모 학교에서는 여러 학년이 한 학급에 모여 수업이 이루어지는 복식학급이 생겨남으로써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에 영향을 준다. 현재까지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응은 선제적인 조치보다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적정 규모학교 육성 등 후속적인 조치가 주를 이루어왔다.

독일은 지난해 신생아 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위기로 아이를 낳을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서 일어난 일이다. 사실 독일의 낮은 출산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부모 시간 및 부모 수당 도입과 보육 시설의 확대가 바로 그것이다. 바로 기꺼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낮은 출산율로 유추하자면 전체 인구 역시 감소해야겠지만 독일의 인구는 2011년 이후 한 번도 감소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일까? 이는 꾸준히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등에서 110만명의 난민이 유입되면서 저조한 출산율에 의한 소실분을 상쇄하며 큰 폭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축소되어 가는 인적 자원의 역량을 외부에서 수혈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독일은 이민 배경을 가진 학령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헤센주 전체 초등학생의 평균 43%가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방문한 헤센주 프랑크푸르트의 Liesel Oestreicher Schule도 다수의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을 통해 이주민들을 독일 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민사회의 협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일례로, 이주민 가정의 자녀는 초등학교 입학 1년 전 독일어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어를 배울 수 있다. 독일어 쓰기 및 발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목적으로 독일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을 확보한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독일어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학년의 경우 매일 5시간의 독일어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하여 보조교사를 포함한 2명의 교사가 지도한다.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정규 수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게 된다.

독일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출산율 증가와 외부적으로는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받아들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교육으로, 인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포용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은 내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 역시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과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를 극복해 나갈 방안을 독일의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자면, 늘봄학교의 안착과 다문화

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돌봄 유형의 다양화와 이를 위한 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은 학부모 육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시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독일의 시기적절한 교육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여 본다.

2 부위원장 김현옥

독일에서 확인한 대한민국의 위상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

한-독 수교 140주년! 프랑크푸르트 한식당의 대기줄을 보면서 K-푸드 및 뷰티에 이르기까지 세계 속 한류 열풍을 체감하며 한국인의 자부심으로 독일 연수의 기대감을 높였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독일인의 마인강에 대한 자부심,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자연 친화적 도시, 자신의 가치와 철학, 이념이 발현될 수 있도록 기본 소양을 갖춘 예술인 양성에 무게를 두고, 모든 과정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교육과 문화, 특히 다문화 정책과 도제학교 운영 시스템, 문화예술 근현대사가 공존하며, 그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눈으로 보여준 만큼 연수 기회를 주신 시민분들을 위해 정책으로 잘 답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수기관 방문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소감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취업 100%, 칼 보쉬 슐레 중등 직업(도제)학교

학생들이 4년제 초등학교(16개 연방주 중 베를린과 함부르크는 6년제, 나머지는 4년제)인 Grundschule를 졸업 후 본인 적성에 따라 인문계(Gymnasium), 실업계(Realschule) 또는 인문계와 실업계가 함께 있는 학교(Gesamtschule)로 고루 진학하는 이유는 임금이나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 기술인, 서비스업 등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를 받을 수 있기에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히든 챔피언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게 되니 대기업으로만 인재가 몰릴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는 학벌을 중시하고, 명문대와 비명문대 간 차별이 존재하기에 거의 모든 사람이 대학으로, 그것도 소위 좋다는 대학으로만 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벗어나 자신의 적성을 찾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마이스터와 같은 최고의 기술인에 대한 높은 대우는 물론 우리가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더 높은 비용을 지급하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진로 선택의 폭은 좁고, 대학으로만 가려 할 것이므로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국적 외국인 학생 43%, 다문화 초등학교

난민 유입, 이민 배경 가정의 다수로 다국적 외국인 비율 전체 학생의 43%인 초등학교다. 학생의 안전, 건강, 복지를 우선하고, 다문화 학생의 정착을 돕기 위해 교내에 헤센주(지자체) 소속 심리상담사를 두고 있었다. 그의 역할에 따라 수업부터 방과후활동 등 모든 과정에 개입할 수 있기에 담임 및 교과목 교사와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학생 개인의 의사 존중에 무게를 두고 통합교육하는 구조였다.

독일에서 문해력 교육은 학생의 사회적 참여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교육 기회 평등과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요소이기에 난민 신고 후 언어 수준 테스트를 거쳐 특별학급에서 집중교육을 받은 후 일반 학교로 편입하는 과정을 거치며 만 6세에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교육 분야의 정책적 성과가 돋보이는 MINT 친화 학교 인증을 받은 유일한 초등학교로 술츠 교장 선생님의 온화하고 열정 가득한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다. 또한, 학교 내 체험학습장 운영, 자연 채광이 드는 교실 설계 등이 돋보였으며, 별도로 마련된 교실에서 돌봄과 방과후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점 역시 인상적이었다. 테러 상황 및 화재 발생 시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와 시스템을 갖추고 교사와 학생이 상호 배우고 가르치는 학습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다양성이 공존하는 독일문화를 간접 경험한 느낌이었다.

라인란트팔츠 교사 노조연합회

교육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질 좋은 교육을 위해 다양한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는 독일에서 가장 큰 교원 노동조합이다. 기관장에게 현실적 고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늘어나는 이민자와 노령화로 인한 전문인력 감소와 교사 부족을 꼽았다. 대안으로 이민 교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민 교사 비율이 높을수록 다인종·다문화 교육 효과도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이민 교사 인증 비율은 20%에 불과하기에, 교원 선발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교육 인프라 확충 및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인란트팔츠 주 유치원 교육 특색은 부모의 노동시간에 따라 1일 최대 7시간 케어가 가능하며 1~6세 혼합반 운영은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더불어

2026년부터 전일제 수업이 가능해진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심리상담 전문가 배치 및 교수 학습 연구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한국 교원의 고민 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면, 학생들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천천히 기다려 주는 학교 문화는 명확하고 신속한 결과 도출을 기다리는 우리와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 및 장기화로 난민이 늘어난다면 부족한 교육 예산가중으로 이중고를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인구 30만 도시, 비스바덴 소방서

화재 신고 1일 5건, 연 1,500건 발생한다는 놀라운 통계, 헤센주 비스바덴 소방서는 총 3곳으로 350명의 소방 공무원이 24시간 근무 체계 유지하며, 소방 자원봉사자가 협력하고 있다. 유치원·초등학생을 위한 교육용 소방차에 미니어처 교구 등을 별도로 갖추고 있으며, 화재 대피 교육은 유치원과 초등 3학년 대상으로 연 2회 학교와 소방서를 오가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4학년 이상은 교육자료를 활용하며, 학부모 대상으로 소방교육과 토론이 이루어진다. 교통안전을 위해 초등 4학년까지 자전거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전기차 화재가 늘어나고 있지만 진압 장비는 외부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한계점은 보완이 필요해 보였고, 주택 등 화재 진압 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구조 장비를 소방차에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부분은 강점이다. 시설 및 장비 체계와는 별도로 독일 내 소방관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인식은 부족한 편이라 아쉽다는 설명이다. 비스바덴 소방서를 나서며 드는 생각은 대한민국 화재 대응과 국민 의식 등 소방강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독일의 직업교육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김학서

우리가 방문했던 독일의 직업학교는 하이델베르크에 위치한 Carl Bosch Schule Heidelberg이다. 상업·기술 중심의 중등 직업학교로 1,3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었다. 독일 학제의 특징은, 우리나라로 치면 너무 이른, 초등학교 4학년 수료 후 각자의 적성과 특성에 적합한 서로 다른 유형의 중등학교로 진학하는 조기 선택 진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대학 진학이 목표인 경우, 김나지움(Gymnasium)의 9년제(1단계: 5학년~10학년, 2단계: 11학년~13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아비투어(Abitur)를 응시하게 되고 이 시험을 통해 독일 내 모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레알슐레(Realschule)에 진학하게 되는데 6년제(5학년~10학년)로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을 병행한다. 졸업 후 전문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하고, 김나지움 상급 과정(11학년~13학년)으로의 진학 자격이 부여된다. 보다 기초적인 수준의 직업 훈련이 이루어지는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또한 존재한다.

우리가 방문한 학교인 Carl Bosch Schule Heidelberg는 2기 교육 1단계를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원화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직업학교로 기업과 연계한 도제 훈련을 통해 시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학생은 기업을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하게 된다. 기업의 정식 채용 절차를 통해 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적합한 분야에 지원을 하게 되고 채용 계약에 따라 급여도 지급 받고 휴가를 이용하기도 한다. 훈련 기간은 보통 3년에서 3.5년까지이며 주 정부의 법률에 의해 직업교육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보장받고 있다.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과 기업의 협력 속에서 일주일 중 3일은 기업에 출근하고, 2일은 등교하며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는 것이 바로 이원화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도제교육의 과정을 거쳐 실습 기업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무려 100%에 가깝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기업의 실무를 충분히 숙련한 후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숙련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고용률을 높여 건강한 산업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두루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독일은 이원화제도가 체계화된 2004년 이후 안정적인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이 역시 이원화제도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선순환적인 인력 양성 구조로 인해 독일 기업은 직접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채용할 수 있는 이원화 제도에 교육 예산의 일부를 분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직업교육 사례는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명 독일의 직업학교와 우리나라의 직업계고의 개념은 다르지만 내실 있는 직업교육 운영을 위해 독일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장실습이 교육과정과 기업 실무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실제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 속에 의미 있는 직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켜보며 세종시의 특성화고 3곳을 떠올린다. 미래형 일자리를 위해 학과의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한창이지만 아직은 영글지 못한 것은 지역 내 열악한 산업 구조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것이 교육기관과 기업의 강력한 협업체계에 기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효과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단단한 산업 기반의 조성은 무척이나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세종시는 미래전략산업 개편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실은 2029년까지 조성될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서 여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며, 탐스러운 과실을 맺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 이는 단순히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일임을, 자생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세종시민의 상생을 보장하는 일임을 독일의 모습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4

위원 김효숙

독일을 통해 본 학교장과 특성화고의 진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김효숙

폭스바겐, 메르스데스 벤츠, 콘티넨탈 AG, 지멘스, 보쉬 등. 세계적으로 이름 난 독일의 기업들이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를 비롯해 타이어 제조나 전자기계 분야 세계 상위 기업을 보유한 ‘산업 강국’의 빛나는 명성 뒤에는 ‘조기 양성’으로 전문화된 인력이 단단하게 떠받들고 있다.

독일에선 진로에 대한 조기(早期) 선택과 양성이 꽤 이른 시기에 결정된다. 초등학교 4학년 때(독일은 4년제) 공부를 계속 이어갈지, 전문화된 직업군을 선택할지, 담임교사가 선택의 기회를 준다.

얼마 전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공무 연수로 다녀온 독일은 유럽에서도 직업교육의 체계화된 시스템과 일관성 있는 교육철학을 지닌 국가로 유명하다.

그중 방문한 하이델베르크시에 있는 칼보쉬 직업학교(CarlBoschSchule)는 현재 1300명이 넘는 학생이 이론과 실습을 겸한 이원(二元)식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선취업 후진학’의 모델인 이러한 아우스빌등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직업학교(하우프트슐레)나 실과학교(레알슐레)를 이수한 15~16세 학생이 선택한다.

학생들은 학교 선택에 앞서 직장에 취업한 뒤 약 3년 동안 그 기업에 맞는 인재로 양성된다. 취업률이 거의 100% 달하고, 실무현장 위주의 교육 덕분에 고도화된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

독일 직업교육의 진일보한 모습 속에서 눈길을 끄는 건 바로 옌스 페터 미쉬(Jens-Peter Misch) 교장선생님의 이력이었다.

그 역시 아우스빌등을 졸업하고 화학 관련 글로벌 기업인 BASF(바스프)에 입사해 해당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했다고 한다. 엔지니어 학위를 취득해 학생을 가르치다 현재는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인이 직업학교 출신인데다 기업에서 근무한 덕에 풍부한 경험과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갖췄다는 걸 엿볼 수 있었다. 학교 현장에선 거의 모든 학생의 이름을 외워 부르며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모습도 꽤 인상적이었다.

세종에서도 전국에서 우수 모델로 꼽히는 특성화고가 있다. 세종장영실고와 세종미래고 그리고 세종여고의 특성화계열학과 등 3곳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있다.

이중 세종장영실고는 통상 시교육청이 발령내는 일반 교육전문직 교장이 역임한다. 세종미래고는 학과 재구조화를 진행하면서 공모교장제로 전환했다.

교장 임용의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학교장의 역할에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 덕에 교장공모제는 이미 많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학생마다 특성에 맞춰 취업과 연결돼야 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읽어내는 해안이 필요한 직업계고교야말로 교장공모제 적용이 가장 필요한 자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한발 더 나아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체 출신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학교장으로 과감히 등용해보는 것도 급변하는 시대를 앞서나갈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특히 일반계고 안에 특성화 계열로 ‘경영사무과’, ‘e-비즈니스과’ 등 2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세종여고의 변신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인다. 일반계고 내에 특성화 계열학과가 있는 현재 구조는 전국적으로도 개편이 진행 중이다. 세종대성고도 지난해 예술 관련 학과를 폐지해 모두 일반계열로 전환한 바 있다.

‘특정’ 분야에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그 분야의 뛰어난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 만들어진 특성화고의 인식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 교육계와 산업계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산업 강국 독일처럼 행정도시 세종의 지역적 특성을 오롯이 반영한 특성화고의 변화에 대한 고민도 절실해 보인다. 세종의 특성화고를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만드는 건 어느 특정인이나 기관의 역할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소멸, 경쟁적인 입시교육 같은 고통스런 우리 현실에 변화를 줄 지렛대로 특성화고의 육성과 진화를 제안해 본다.

※ 본 글은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에도 게재되었습니다.

5 **위원 홍나영**

독일에서 마주한 네 번의 다짐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홍나영

1) Carl Bosch Schule Heidelberg

하이델베르크 위치한 Carl Bosch Schule는 중등 직업교육 중점 학교다. 상업·기술을 중점으로 하는 직업학교로 Jens-peter-Misch 교장선생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셨다. 교장선생님이 되기까지 성장과 배경 등 졸업, 직업 관련 자격증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교장선생님의 자녀 3명이 겪고 있는 상황 등을 대비시켜, 현 독일의 교육제도를 설명해 주셨으며, 과거에 Carl Bosch Schule 직업학교에 교사로도 재직한 부분도,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학교에 대한 애착심과 열정,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등이 인상 깊었다.

현재 1342명의 재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매일 800명이 넘는 학생이 등교하고 있었다. 그중 시간제 학생은 751여명이고 종일제 학생이 591여명이다. 교사는 86명 정도로 기업과 연계한 도제훈련을 위해 과정별로 상이하나 보통 주당 사업체 3.5일, 학교 1.5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업체에서 교육을 받을 때, 기업의 특성상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체에서 1주일 이상 교육 받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Carl Bosch Schule 직업학교의 교육분야는 ①전기공학, ②차량기술, ③정형외과기술, ④금속기술, ⑤CAD설계, ⑥상용디자인, ⑦정보기술, ⑧기술과경영, ⑨의료장비기술인데 각 분야의 특성에 맞춰서 실습교실에 교재교구 장비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학생들은 수업에 임하고 있었다. 그중 놀라운 것은 중등학교과정에서 정형외과기술과 의료장비기술 등 의료분야까지 익히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시험을 대비하여, 자기가 만든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사뭇 진지하고 엄숙하면서도 각자 자유로워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이 이채로웠다. 정형화 될 수 있고 지루할 수 있는 교실 안 곳곳에 식물을 심어 공기정화와 아이들 정서까지 배려 한 부분들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고, 다양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기업과 연계하여 이론과 실습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세종시에도 인문계와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겸할 수 있는 통합학교가 신설되기를 바라본다.

독일의 진로교육은 초등 4년이후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인문계와 실업계로 진로가 이르는 시기에 결정된다. 특히, 실업계 중등학교에서는 매 학년마다

2주간의 실습을 통해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직업교육법에 따라서 학교 현장과 민간 기업이 공교육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진로교육을 할 수 있다.

인문계 중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대학 중퇴자를 위한 진로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실업계 중등학교에서 인문계 중등학교로의 전학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제도와 학점제를 통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독일 진로교육의 시사점은 직업학교의 진학, 재학이 개방적이고 유연하여 청소년이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측면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꿈과 특기와 재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재능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실패를 정정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음으로써, 미래에 직업을 선택할 때 어려움을 줄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rl Bosch Schule 직업학교의 전체 학생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로 독일에서도 여학생이 실업계를 꺼려하고 사회 저변에서는 실업계 중등학교의 학업성취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

2) Liesel Oestreicher Schule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Liesel Oestreicher Schule는 다문화 초등학교다. 초등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로 Thilo Schulz 교장선생님과 사회복지사(심리상담사) 선생님이 다양한 음료와 다과까지 준비하시고 세종시를 미리 알아보시는 등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Liesel Oestreicher Schule는 현재 1~4학년 재학생이 총 360여명으로 이중 43%는 이주 배경을 학생이다. 16학급 규모이며 교사는 정교사 34명, 보조교사 25명이다. 그중 특이한 점은 사회복지사(심리상담사) 선생님이 상주

하시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수업시간에는 보조교사 역할까지 담당하고 계셨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MINT 친화 학교로 인증을 받은 프랑크푸르트 내 유일한 초등학교로 재즈활동, 축제, 서커스 등 학생들이 다채로운 예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각종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한국 교장단이 정기적으로 방문할 만큼 매력적인 교육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현대적인 시설과 안전한 시스템도 두루 갖춘 도심 속 자연 친화적 학교였다.

수업이 끝나면 돌봄이 진행되는데 교사와 돌봄교실이 계단으로 연결되어 접근이 편리하였고, 각 교실마다 테마 별로 꾸며진 공간이 인상 깊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 구성이 잘 되어 있어 세종시에서도 아이들의 창의력 신장과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학습 공간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되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독일은 전쟁과 분단이라는 아픔과 통일 등 격변의 시대를 경험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참고하고 배울 점이 많은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 통일과정에서의 독일은 외국인, 이주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사회통합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치·경제·사회적인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중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과 청소년들의 교육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교육을 통한 통합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문화 교육에서 시사점을 도출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서 불리한 아동, 특히 이주 배경을 지닌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성취와 언어능력을 조화롭게 하고 모든 직업훈련과 그밖에 모든 훈련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 예로 Liesel Oestreicher Schule에서는 독일어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아이가 성공적으로 학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헤센주가 지원 하고 있다.

집중수업을 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진행되며, 언어적인 이유로 1년간 취학이 연기된 아동도 계속해서 언어지원을 받고 학기 후반에 1학년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학교에 입학해서는 독일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 집중과정이 있으며 최대 2년까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이 두려움과 거부감 없이 차별없이 동화될 수 있도록 학교의 종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술 및 미학수업과 스포츠수업에도 포함시킴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등 전 선생님들이 세심하게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노력하고 있어서 감동을 받았다.

3) 라인란트팔츠 교사연합회

마인츠에 위치한 라인란트 팔츠 교사 연합회를 16년째 맡고 계신 협회장님 Mr.Klaus-peter Hammer과 부기관장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맞이해주셨다. 라인란트팔츠 교사연합회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교원들이 여러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질 좋은 교육과 교사들의 급여, 휴가, 노동시간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성격의 연합회이다.

지금 독일에서의 쟁점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교류 및 교사들의 교권 및 교원복지와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을 위한 독일과 한국 교육발전 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고 분위기가 숙연해 지기도 했다. Mr. Klaus-peter Hammer 협회장님은 세종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세종시에 방문 하셔서 세종시 교육을 배우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세종시 교육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한 보람된 토론의 장이 되었다.

지금 연합회에서 교육 현안은 교육 예산이 많지 않아 교원을 타이트하게 뽑다보니, 교사들의 휴가나 병가 시에 대체인력이 부족하고 과다 업무에 시달리고 그렇다 보니, 평균 노동시간은 줄어드는데 교사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니, 급기야 젊은 친구들이 교사를 하려고 하지 않고 교사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초등학교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육교사가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고 교통이 편리하지 않는 지방에 보육교사의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다.

첫째, 젊은 친구들로 하여금 교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다. 지식 전달자를 넘어선 생애발전에 맞게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둘째, 교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서 노동환경을 개선한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사를 상담 해주는 심리학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셋째, 외국인교사를 채용하여 부족한 교사를 대신한다.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외국인에 대한 길을 열어준다.

넷째, 학교를 현대화하여 환경을 개선한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인식변화를 통한 상대적으로 낮은 교사의 인건비 인상 처우개선이 향상되어야 한다.

이렇듯 교사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 교사의 몸과 마음의 심리상태는 많은 시간을 교사와 지내게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교권이 신장되고 교원복지가 제대로 될 때 ‘신나는 선생님 ~행복한 아이들~’ 이란 슬로건이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한 학생이 학교생활을 ‘매일 매일이 축제 같다’고 표현했다. 학교는 물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국가 차원의 현실성과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으로 교사, 아이들 모두가 특별해지는 행복한 세종시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4) 비스바덴 소방서

비스바덴 소방서는 헤센주의 비스바덴시의 소방서이다.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 담당관인 Sebastian-pawlik 소방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소방공무원의 근무체계와 지휘관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지 소방조직 체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화재예방 프로그램 등을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니, 이해가 잘 되고 소방관에 대한 자부심과 화재예방 교육에 대한 진심이 느껴져 존경심이 느껴졌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 수업을 위한 교구 교재가 차량에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직접 열어 보여주셨는데 아이들이 흥미로워 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설정하여 차를 꾸미고 교재 교구가 상황별로 꾸며진 차량을 이용하여 수업에 임하시는 소방관님의 수업시간이 그려졌다.

헤센주의 모든 아이들은 나이별로 똑같은 주제와 교재로 수업받는다고 한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교재로 활용하는 workbook을 선물로 주셨는데, 차량에 이용한 캐릭터가 이야기 형식으로 이끌어 가는 작은 동화책도 있었고 색칠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정성을 다하여 workbook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세종시도 안전교육시간에 전문가가 만든 교재 교구가 있는지, workbook 등이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안전예방을 위한 좋은 자료를 연구 계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화재 진압시스템 및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등 비스바덴 소방서 시설물 탐방 중 실제 화재경보기가 울려 활동을 멈추고 소방관들이 실제 화재경보기의 비상벨 소리에도 침착하게 빠른 시간 안에 출동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장감 넘치는 장면을 보니, 놀랍고 걱정스럽기도 했다. 화재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술적, 조직적 접근으로 프로그램을 잘 실천하여 세종시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소방공무원들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겠다.